



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

01 ●●●●●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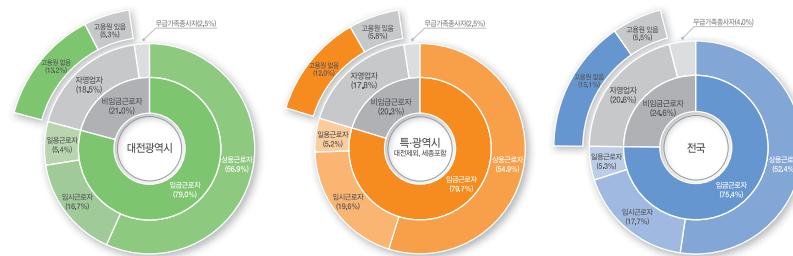
대전광역시 자영업자 현황

대전광역시 자영업자의 의료서비스 실태

자영업자, 1~4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, 임시직·일용직 종사자를 대상으로

- 대전광역시는 다른 특·광역시 평균보다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높고,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은 2016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임

- 고용원을 두고 경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형편이 더욱 나빠지고 있기 때문



〈종사상자별 근로자 비중(2019년)〉

-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-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독립적인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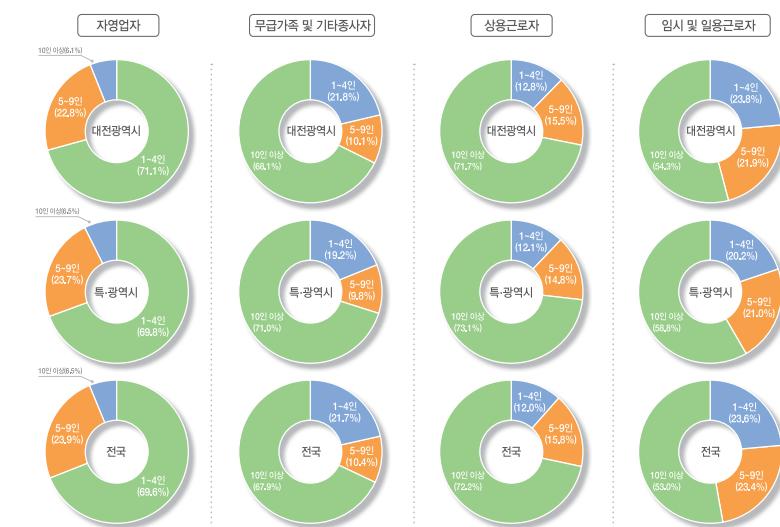
-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-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(무급가족종사자 포함)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



〈대전광역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 변화 추이 (2010-2019)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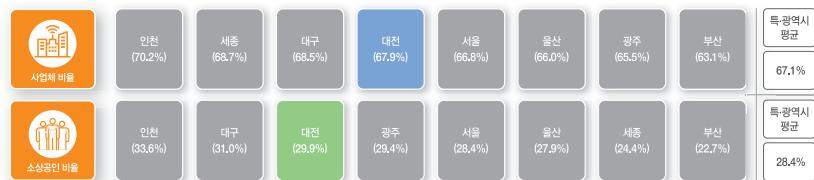
- 전국 및 특·광역시 대비 영세 자영업자, 무급가족·기타종사자, 임시·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음

- 1~4인 이하 소규모 자영업자, 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,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이 특·광역시 및 전국 평균보다 높음



〈종사상자별 사업체규모별 종사자 비중(2018)〉

- 전체 사업체 중 자영업자가 속한 소상공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



〈특·광역시 사업체 및 소상공인 비율 (2018)〉

0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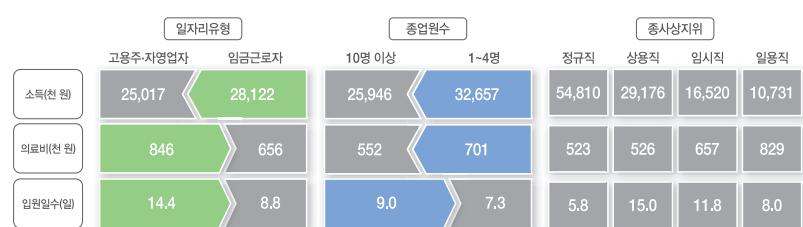


대전광역시

자영업자-저소득근로자 의료비 부담률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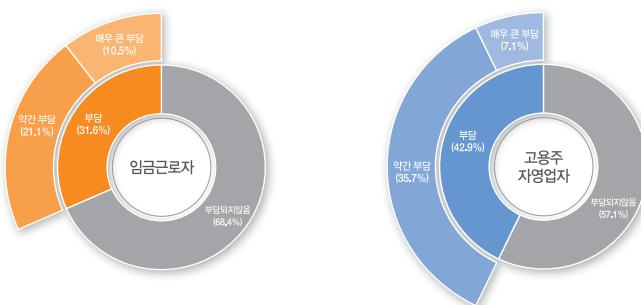
- 대전광역시의 자영업자, 임시직·일용직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의료부담이 높은 편임

- 고용주-자영업자(무급가족종사자 포함)는 임금근로자보다 개인별 소득수준은 낮고, 입원일수와 의료비는 많아 의료서비스 형편이 나쁜 상황
- 이는 1~4명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와 임시직·일용직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사업체 종사자나 정규직 근로자보다 의료서비스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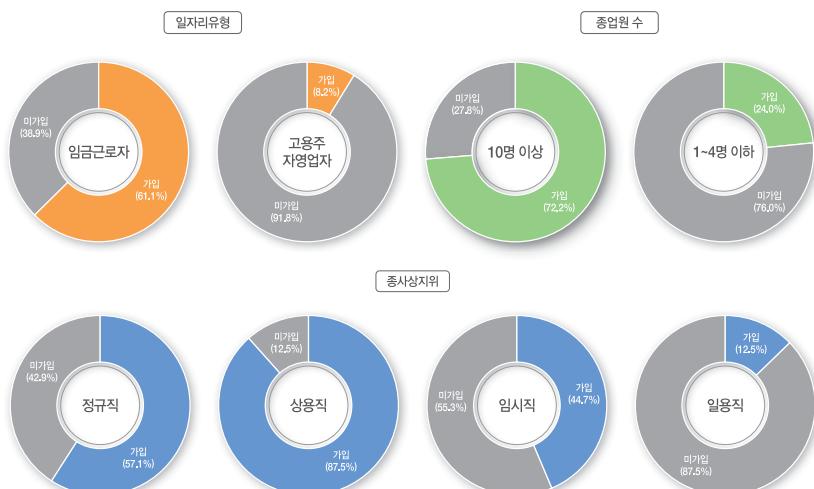
〈대전광역시 개인별 연간 입원일수·의료비·소득 수준 (2017)〉

- 입원 의료비는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줌



- 자영업자, 소규모사업체(1~4인) 종사자, 임시직·일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 저조

- 임금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61.1% 이상으로 높지만, 자영업자는 91.8%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
- 또한 1~4인 소규모사업체 종사자, 임시직·일용직에서도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음
- 이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소득 근로자의 업무상 상병보장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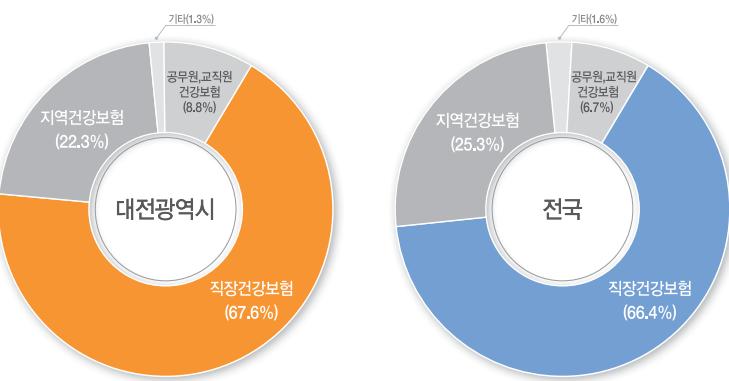


〈대전광역시 산업재해보험 가입 비율 (2017)〉

전국 및 대전광역시 의료 서비스 수준

• 의료보장형태는 대부분 직장건강보험

- 대전광역시와 전국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가 각각 67.6%, 66.4%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지역건강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음
- 대전광역시는 전국보다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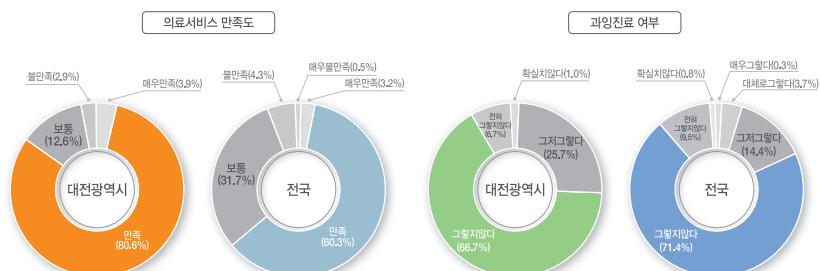
〈의료보장형태 (2017)〉

• 입원 시 의료서비스 만족도 매우 높음

- 입원 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전국과 대전광역시 모두 높음
- 특히 대전광역시는 매우 만족을 포함한 만족도가 84.5%로 매우 높음

• 대체로 입원 시 과잉진료 정도가 매우 낮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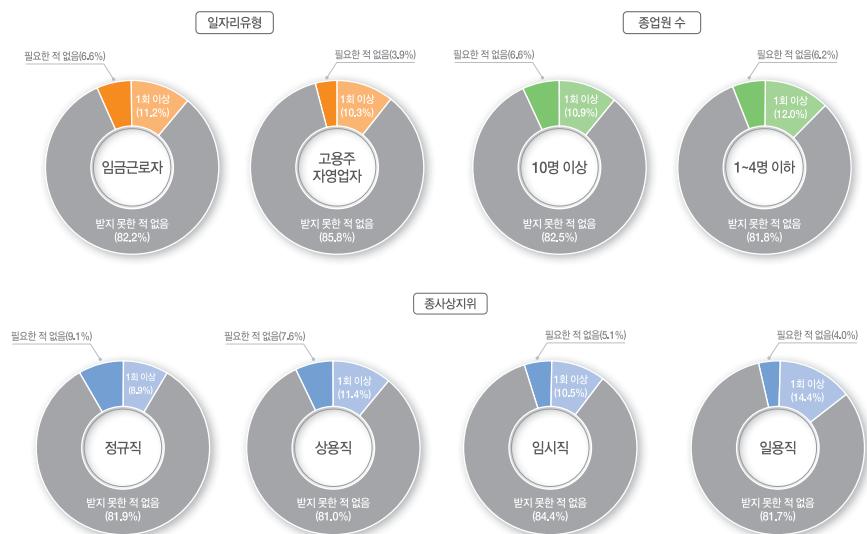
- 대전광역시의 경우 입원시 과잉진료를 받았다는 응답은 없었으며, 전국의 경우 4.0%로 매우 낮은 수준



〈입원 시 의료서비스 만족도 및 과잉진료 여부 (2017)〉

• 저소득근로자의 미충족 의료경험률이 높음

- 의료서비스를 1회 이상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집단은 1~4인의 소규모사업체 종사자나 임시직·일용직 근로자 등 주로 저소득 근로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


〈전국 지난 1년간 미충족 의료경험률 (2017)〉



Daejeon Sejong Research Institute

8월 대전·세종 이슈 뉴스기사 분석

※ 지금 대전·세종은?
20.8.1-8.27

-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많았던 8월의 대전
 - 2020년 8월 1일부터 27일까지 대전광역시와 관련된 충청권 언론사의 기사 2,847개의 키워드를 분석
 - 8월의 대전광역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여전히 코로나19가 큰 화두였으며, 코로나 19뿐만 아니라 잠자리로 인한 흥수 태풍 등으로 인한 날씨와 관련된 내용이 비중있게 다루어짐



- 재난 재해 안전지대라 여겼던 대전에서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속출
- 근본적인 혼우 방재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짐
- 대전시는 동구를 별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서구 청원동 일대를 자연재난위험지구 지정 추진
- 현재까지 주민들이 '트별재난지역'으로 지정됨

- '스테이 스트롬' 캠페인은 코로나19극복과 조기 종식을 응원하는 캠페인
- 코로나 19 극복메시지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자 2020년 3월 외교부가 시작
- 대전이 고교기관·병원 등도 이 캠페인에 동참하여 코로나19의 종식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.

- 유성구는 정부의 그린뉴딜정책 추진에 발맞춰 '유성형 5Green 뉴딜 계획'을 수립
- 공공기관의 제로에너지화(Green Hall), 도시공간의 녹색전환(Green Zone)
자원순·분산형 에너지 혁신(Green Wood), 전기·수소차로 그린 모빌리티 확대(Green Car) 치환과 저탄소·주거환경 혁신(Green Home)의 5개 부문을 제시

순위	키워드	빈도(회)	키워드	관련성
1	코로나19	159	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	0.996
2	날씨	51	코로나19	0.731
3	태풍	33	날씨	0.509
4	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	11	코로나19 확진	0.369
5	코로나19 확진	8	스테이트从容	0.295

〈8월 대전광역시 충청권 언론 기사 키워드 분석〉

- "코로나19" 만큼 "행정수도 이전"이 큰 화두였던 8월의 세종
 - 2020년 8월 1일부터 27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충청권 언론사의 기사 828개의 키워드를 분석
 - 8월의 세종특별자치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대상인 "코로나19" 만큼 "행정수도 이전"이 큰 화두였으며, 이와 더불어 세종시의 부동산 관련 키워드가 비중있게 다루어짐



- 세종시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'2020년 지역사회간강조사'를 실시
- 조사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되며, 성인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
- 이번 조사를 통해 생산된 건강통계는 시민에게 필요한 보건사업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설정하고
나아가 시민으로서 나아가야 할 건강한 유도원

- 세종시는 올해 상생형 문화거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한솔동 노을3로 일대를 선정
- 이 사업은 거리를 배제로 지역에 거주하는 행정부 소통의 기회를, 시민들에게는 손쉽게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
- 왕왕 시민, 거리예술, 문화기획자, 한솔동 상인회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해당 거리에

- 정부에서는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문제와 부동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다시 시작
- 행정수도 이전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은 수직 상승하고,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
-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아직 강물운반 사업이며 물 하천까지 세종시 아파트값은 계속 상승될 것으로 예상

순위	키워드	빈도(회)	키워드	관련성
1	행정수도	68	행정수도 완성	0.995
2	코로나19	42	부동산 소유권	0.498
3	행정수도 완성	16	현신도시 활성화와 주변지역	0.448
4	세종 이전	9	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	0.448
5	부동산 소유권	5	세종 이전	0.398

〈8월 세종특별자치시 충청권 언론 기사 키워드 분석〉

* 자료출처: 한국보건사회연구원·국민건강보험공단(2017), 「한국의료패널조사」/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(2019)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/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



대전세종연구원 도시정보센터
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(선화동287-2)
T. 042.530.3494 F. 042.530.3528
www.dsi.re.kr

발행처 도시정보센터 : 박해인 박재물 : 편집장 정경식

원고 김기희 · 발행일 2020. 9. 4. · 디자인 (주)시우컴퍼니



 본 메일은 발신전용입니다. 메일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신거부를 통해 정보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